

칠레 사회운동의 새 아침¹⁾

세르히오 그레스 토소

칠레의 사회운동은 지난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무기력했다.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독재 시대의 공포체제에 대한 기억, 사회적 요구의 표출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와 권력이 확립한 미디어 독재 등이 복합적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의 거리 시위 모습

작용한 탓이다. 또한 20년 동안 연정체제로 칠레를 지배한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집권 기간 동안 정권과 사회운동의 밀월 관계도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2011년은 사회운동이 새 아침을 맞이한 날로 칠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칠레의 사회운동은 각계각층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급진적이고 저항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대학생이 주축이 된 공공교육 부문의 움직임이 가장 큰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 이 글은 칠레대학 사학과 교수 세르히오 그레스 토소(Sergio Grez Toso)가 2011년 9월 1일 산티아고에서 발간된 《클리닉》(The Clinic) 지 409호에 발표한 글을 저자의 허락을 얻어 요약 번역한 것이다. 원제도 「칠레 사회운동의 새아침」(Un nuevo amanecer de los movimientos sociales en Chile)이다.

이 운동은 교육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부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여는 아마 칠레 사회를 재정치화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헤게모니에 복속되어 있었던 대다수 시민들은 대학생들의 저항을 통해 그동안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신념, 가치, 규범, 제도 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령, 몇 달 전만 해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제논리로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시민이 학생들과 함께 질 좋은 무상교육,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교육, 교육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구리산업의 재국유화,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개혁, 제헌의회 소집 등은 그동안 그저 골수 좌파의 꿈이었을 뿐이지 별다른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못해서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이 변화는 몇몇 분석가들의 지적처럼 1980년대 중반 이루어진 군부독재 지지자들과 온건 반대파들 간의 합의가 이제 붕괴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분명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정당성 위기이기도 하고, 1990년부터 작동한 제한적이고 후견인(後見人)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위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위 대의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의정치'는 허울뿐이고 사실은 사회 기층민중과 유리되고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라서 이제는 낡은 정치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물론 2011년의 변화를 순전히 학생들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20년 이상의 무기력 상태 속에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이 지속적인 움직임이 학생들이 주도한 교육 부문의 사회적 저항을 통해 비로소 주목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칠레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을 역사의 무대에서 축출하려면 과제가 산

적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긴급한 것은 다음 사항들일 것이다.

첫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나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까지 학생운동이 보여준 자율성, 급진성, 정치적 영특함을 갖추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전쟁에서의 보병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요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둘째, 여러 사회운동이 연대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제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도 정치권에 각자의 대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소위 '칠레의 이행'(transición chilena)을 이끈 쌍두마차(콘세르타시온과 전통적인 우파)에 대한 염증은 사회운동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대변자를 배출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토대를 재창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이다.

궁극적으로 각 사회운동의 대표자들을 주역으로 하는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제2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정치적 전망으로 삼아야 한다. 대의주권(soberanía delegada), 아니 본질적으로는 명목상의 주권밖에 없었던 지난 200년 세월을 뒤로 하고, 칠레라는 국민국가에 사는 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세상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국민투표가 성사된다면, 이는 민중 주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석균 번역 및 요약]